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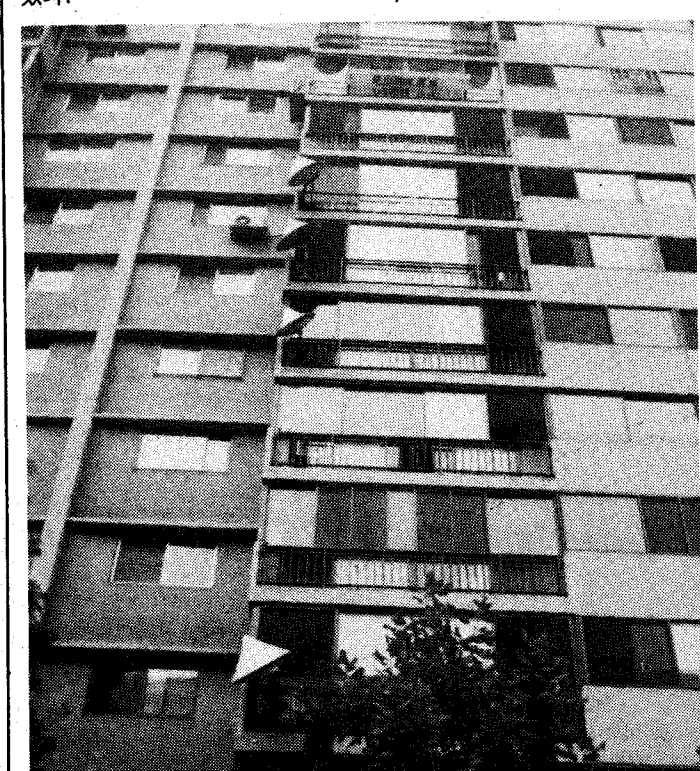
르 뵈 이질화 더해가는 강남지역의 문화

티벳산의 원목으로 기둥을 세우고 정성들여 조각한 한옥의 정문앞으로 고급승용차 한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섰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선글라스를 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보이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젊은이 하나가 한옥앞으로 다가가 자동차의 키를 그녀에게 건네받았다. 자가용을 차고로 몰아갔다. 멋들어진 한자로 쓰여진 현판을 단 'G' 음식점이다.

강남구 압구정동과 청담동, 서초구 반포동과 방배동 등지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은 사실 이곳에서는 별로 특이해 보일지 모르겠다.

"성남갑점처럼 죽 늘어선 아파트단지 속으로 마치 분지처럼 모여있는 강남일대의 상가는 크게 둘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반정동의 의류상가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음식점으로 크게 얘기할 수 있고 최근에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도 확충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대개 이렇게 보면 별로 놀라지 않을 겁니다" 압구정동에 서 옷가게를 하고 있는 김영식씨의 얘기다. "게다가 그런 류의 상점들은 대형화되어 가고 있어요. 강남의 소비문화는 그 단위가 크기 때문에 장사꾼의 안목으로는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지요"

실제로 청담동을 중심으로 하는 의류상가는 '나나리치' '지아니베르사제' '피파주르' '라벨' 등의 수입의류 상가이고, 그것도 3-4층을 모두 점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56만원짜리 이태리제 블라우스에 78만원짜리 스커트를 받쳐입은 여성들이 이 강남거리의 젊은 혹은 중년의 여인들이 즐겨입는 옷이라고 한다.



"이질문화 유입" 인공위성 수신장치, 각종 외국점자들은 이미 낯선 물건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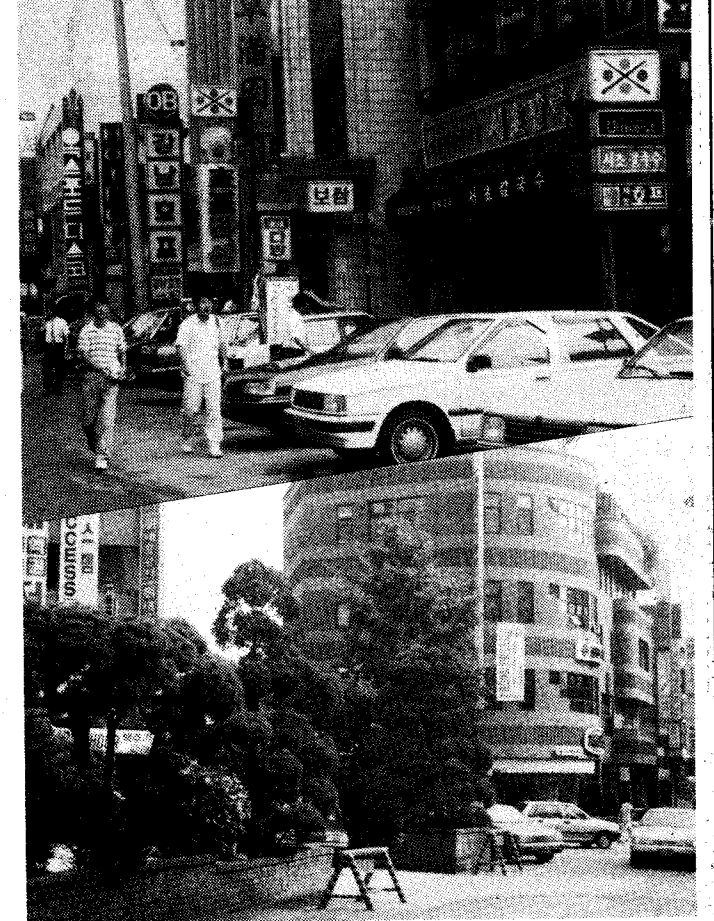
"강남의 문화환경은 우리고유의 문화적 역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보입니다. 이것은 전통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과도한 강남개발에 있어요. 그리고 개발로 인한 자본의 엄청난 축적은 그들로 하여금 소비로 그리고 외취향으로 발달

압구정동의 J국민학교의 국사선생님인 김선생님은 강남의 학생들은 마치 유럽이나 미국의 학생들 같아져 한숨을 쉬며 얘기를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점담을 끼고 한참이나 돌아 점담을 찾을 수 있었던 모회사의 중역이라는 안씨의 집은 그야말로 보물창고인 상상할 수 있을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에서도 이곳 강남은 또 다른 서울의 서울로 그 융합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은 당초 4대문안을 중심으로 한 단핵도시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산업화로 다핵화도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비롯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주택난의 해결책으로서 1970년의 '역제분산책', 1977년의 '수도권 인구 재배치계획' 등에 힘입어 강남은 고속도로의 발전을 하게 되었고 그와중에 엄청난 줄부

강남일대의 문화적 환경은 거의 강남만이 창조할 수 있는 독특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 의상잡지에서 본듯한 젊은이들이 이 거리에 귀족적이다. "남" 시간을 주로 친구들과 어울리며, 수영장이나 볼링장을 다니고,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고 집에 갑니다. "별로 스타일없이 이야기를 꺼내는 Y대 2학년의 한영숙양은 사실 그런 것들 이외에 소소한 것들은 별반 없어서 그것조차도 흥미를 느끼고 있지는 못하다고

"사실 이러한 우리문화의 이질화는 강남만이 아닙니다. 다만 강남이 심할뿐이지요. 고도의 산업화를 추구해온 이래 전통의 파괴와 훼손은 서울이란 거대한 도시 전체의 모습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성장과 비대화는 당연한 귀결이랄 수도 있구요. 그리고 현재 강남은 얼마 전처럼 줄부들만이 모여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 곳의 거주 분포를 본다면 정확히 얘기할 수 없겠지만 우선 고속도로인 것만은 틀림없고, 그들이 기업을 이끄는 기업주나 간부들뿐만 아니라 투기성향의 여성들도 상당수, 연예인, 예술가, 교수 등의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그 분포되어 있습니다. 비록 스쳐가는 자가용들 속이지만 얼굴들이 꽤나 알려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눈치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강남은 이제 단순한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 어느정도의 지적소양이상의 사람들이 더욱 많은 곳이지요"



"소비지향적 문화" 대규모 의류상가, 고급음식점, 자가용을 소비문화가 발달한 강남지역에서는 일부의 문화시설마저 소비적이다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 강남의 전통적인 명문고 23개교 등 40여개 초·중·고교가 강남으로 이전, 강남학군 선호심을 부채질하고 중산층의 대거 강남이전을 가져왔다는 통계를 접할 수 있었다.

결국 강남의 여러가지 좋은 조건과 강남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무척 잘 조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조화가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또 다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압구정동 모퉁이에 궁궐처럼 서있는 이태리 수입의류점들을 막 열고 나오는 20대 초반의 여

이런 부정자본이 수입원 외재문화와 만나 전통을 상실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화적 전통의 상실보다 더욱 가슴아픈 것은 전통예절의 상실입니다. 강남의 젊은이들 중에 예의바르고 겸손한 젊은이를 만나기란 정말 쉽지 않아요. 이들은 모두 젊은이를 무시하고 이기적이며 때로 난폭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죠. 물론 구 조직으로 본 많은 이들이 가지는 한계인 것도 감수요. 사실 이 장사하면서 때때로 치우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자식도래 아이들이 자가용되고 돌아와서 반말 지껄어 해대는 것에 울화가 치밀지만 먹고 살자니 할 수 있나!"

방배동에 시작하지 얼마 안 됐다는 옷가게를 하는 반백의 주인아저씨는 무척 답답해 하기만 했다. 강남의 문화현상은 자본의 집중이 초래한 돈의 문화다. 거기다 내려가는 주체할 수 없는 돈으로 그들은 우리의 아름다운 미덕마저도 마구 해치고 있는 것이다.

수족관처럼 느껴지는 여항이 가득한 열대야들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방배동의 어느 서양식 카페에서 알아듣기 힘든 서양음악을 들으며 머리카락이 붉은 한국의 젊은 아가씨를 눈여겨 보다가 못내 아쉬운 커피값 1천 5백을 지불하며 주머니의 부끄러움을 느끼고는 활활하게 쫓겨나온 강남의 거리는 네온의 화려한 불빛으로 또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다.

(박웅 기자)

전통문화 단절의 일번지



시킴으로써 장려한 거지요. 이 곳에서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은 음식점뿐입니다. 그것도 아주 크고 화려한 음식점들이지요. 간혹 개인 저택을 고전양식을 따라 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모두 서양식이지요. 식사도, 예절도 모두가 그렇습니다"

창살로 만들어진 정문을 들어 서면 잔디와 돌계단이 잘 조화된 작은 길이나 있고 양 옆으로 넓은 잔디밭이 무척 산뜻해 보였습니다. 돌담 밑이나 길에 병풍처럼 둘러선 이목초를 나무들이 모두 잘 손질되어 있었다. 외국영화의 대부호의 정원이 듯 했다. 거실의 입구를 열고 들어가서 첫 눈에 띄는 것은 나무받침에 유리를 얹은 테이블과 소파였다.

그리고 벽을 차곡차곡 채운듯한 액자속의 그림 몇점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마키마우스가 그려진 예쁜 갑판위에 멜론트 오렌지주스를 마실때였다. 바다가 보이고 산과 그리고 하늘이 자연스럽게 조화된 수목과 꽃집이 집안의 고품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성북동에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온지는 한 3년 됐습니다. 두 아이들의 교육문제도 있고, 이 집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이사오게 되었지요" K고등학교의 육성 회원이기도 한 이집의 아주머니는 자녀의 교육문제에 화제가 집중되는 걸 원치 않는다. 양육의 편리함을 굳이 택하지 않은 것은 집을 벗어나면 느끼는 삭막함 때문이라며 소위 인테리어의 서양식 편협함을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조선 5백년 이후 계속적으로 수도 서울은 비대해져왔다. 인신출세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서울

탄생시킨 축복(?)받은 지역이 된 것입니다" 서초구 방배2동 사무소의 직원 정아무개씨의 말은 현재의 강남의 위상을 조명하는데 근거를 제공한다.

1960년 이후 밀집된 강남의 인구 및 기능을 강남으로 이전

한다. "이 곳의 사람들은 잔돈을 던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도 하루에 몇 명만이 시선을 주고 그들의 지갑에 꽂혀있는 지폐 몇장을 던져 주고 갑니다"

어렵게 발문을 트기 시작한 한 기업인의 얘기다. 무작정 상경한 후 영동로의 조그만 공장에서 선반공으로 있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두다리를 잃고 몇몇인기를 자살을 시도했으나 죽지 못해 어떻게 해서 구걸생활을 하게 됐다는 그의 모습은 이곳 강남의 이방인으로 초췌하고 서글퍼 지게만 느껴졌다. 평당 몇백만원이 넘는 거리에 두다리를 잃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는 끝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마치 외국어 어느 곳인가를 온 듯한 방배동 한 모퉁이에서 그와와 만난 서울출마자 한 기에는 어색하기만 했다.

12.5%보다 2배 가까이 높다. 주거여건면에서는 미시행 주택개발제한사업지구인 강남이 50개 지구 2백88만여㎡, 강남이 25개 지구 1백40만여㎡로 강남이 압도적으로 많고, 미시행주거환경개선지구도 강남이 강남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28개지구 66만여㎡에 달하고 있다.

도시기반시설 및 편의시설면에서도 미세설로, 노후관 총연장, 공원, 도시가스공급률 등으로 나타나 강남의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연도별지가변동률은 강남의 284.92%에 비해 강남은 315.58%를 기록. 강남지역주민들이

인문 주창자의 은빛 소나타에 시동을 걸고 있었다. 나이로 보나 그 사회적 지위로 보나 아직 자가용을 지닌 신분은 아닌 듯 한 젊은 여인의 수입원을 과연 무엇일까?

국세청은 발표한 세무조사 대상자중 28명 초호화생활자들의 수입원은 모두가 정상적인 수입이 아닐 것이라는 것은 명단만 공개되지 않은것으로도 쉽게 알 수 있으며 게다가 정치, 사회적으로 입력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사람들일 것이다.

강남에 유통되고 있는 많은 돈들 중에는 이같은 부정자본이 70%이상이라는 것이다. 결국

수입의류상가, 고급음식점 등 소비지향적 풍토형성 동경거리를 걷고있는 착각을 불러 일으키기도 급격한 개발·성장, 불로소득 과소비 조장

시하기 위해 여의도 전설, 영동지구의 신시가지 개발을 촉진해 왔었다. 그 속에서 한창기세 드신 평무기와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적 작용하여 강남은 곧 돈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었고 작금의 강남의 이질문화는 결국 '돈'이 집중되어 있다는 데 가장 큰 요인이 있다 하겠다.

행정적 구분으로 강남구와 서초구등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이곳의 행정적 차별의 의미는 거의 없다. 압구정동, 삼성동, 개포동, 청담동, 반포동, 방배동, 서초동 등으로 대표되는 이 지역의 상업적 문화적, 교육적 배경은 전혀 차이가 없다. 특히

어렵게 발문을 트기 시작한 한 기업인의 얘기다. 무작정 상경한 후 영동로의 조그만 공장에서 선반공으로 있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두다리를 잃고 몇몇인기를 자살을 시도했으나 죽지 못해 어떻게 해서 구걸생활을 하게 됐다는 그의 모습은 이곳 강남의 이방인으로 초췌하고 서글퍼 지게만 느껴졌다. 평당 몇백만원이 넘는 거리에 두다리를 잃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는 끝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12.5%보다 2배 가까이 높다. 주거여건면에서는 미시행 주택개발제한사업지구인 강남이 50개 지구 2백88만여㎡, 강남이 25개 지구 1백40만여㎡로 강남이 압도적으로 많고, 미시행주거환경개선지구도 강남이 강남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28개지구 66만여㎡에 달하고 있다.

인문 주창자의 은빛 소나타에 시동을 걸고 있었다. 나이로 보나 그 사회적 지위로 보나 아직 자가용을 지닌 신분은 아닌 듯 한 젊은 여인의 수입원을 과연 무엇일까?

제28회 전국 남녀 고교생 문예작품 현상모집

우리 경희대학교에서는 전국 고교생의 창작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문단에 진출하여 약진하는 경희문학을 빛내고, 나아가서는 한국문학의 기수가 될 유능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문예작품을 현상모집합니다.

1. 응모 자격: 고교 전학년 재학생
2. 모집 부문: (1)시 부: 시 3편이상 ○ 시조 3편이상 (2)소설 및 희곡부: ○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정도 희곡 2 단막물, 200자 원고지 60~70매 정도 (3)수필 및 평론부: ○ 평론 200자 원고지 70매 정도 ○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 3편이상
3. 모집 기간: '90.10.1~'90.11.1
4. 원고 제출처: 경희대학교 문리대 국어국문연구실
5. 당선자 발표: 개별 통지함
6. 시 상: ○ 특선 1명, 상금 및 부상 ○ 당선 2시(시조), 소설, 희곡, 평론 및 수필부 각부문별 1명 상금 및 부상 ○ 가락 2시(시조), 소설, 희곡, 평론 및 수필부 각부문별 1명 상금 및 부상 ○ 장려 2명
7. 특 전: ○ 신입학년도에 한하여 특선자에게는 2년간 등록금 전액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당선자는 1년간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본고 문리대대학 국어국문학과에 합격한 경우) ○ 제학중 신춘문예당선, 문학지, 추천 완료 등으로 문단에 진출할 경우 총장 장학생으로 전학년의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입학후 본고에서 실시하는 문화상을 수상할 경우, 등급에 따라 전학년의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음.
8. 심사 위원: ○ 추후 발표
9. 기 타: ○ 응모작품에는 제학학교장의 추천서(서식자유)와 지도교사의 의견서(200자 원고지 1~2매 정도)를 첨부할 것. ○ 결봉에 '현상문예응모작품'이라 주시할 것. ○ 반드시 200자 원고지에 쓰고 합철할 것(백지 사용 무효) ○ 응모작품은 일괄 돌려주지 않음. ○ 이 밖의 더 자세한 것은 본고 국어국문학과 연구실로 문의할 것. ○ 최종 입상결정은 심사위원이 면담후 결정한다. ○ 참고로 현재 문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희 출신의 주요 문인은 다음과 같다. 서정범, 신봉승, 전상국, 김용성, 이성부, 박이도, 조세희, 조해일, 조태일, 한수산, 정호승, 박규, 이문세, 박정만, 고원경의 다수.

1990년 9월 1일
주최: 경희대학교
주관: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후원: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130-7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전화 961-0223(직)

1990학년도 제2학기

V.O.U. 방송 편성표

서울캠퍼스					수원캠퍼스				
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캠퍼스로 가는 길'					푸른 날개짓 창공을 향하여				
뉴 스					v. o. u 캠페인				
아침의 산책					News				
뉴 스					News와 해설				
캠퍼스 신 호 등					음악이 있는 오후				
입을 위한 행진곡					주말의 테이프				
보도기획	한소리	우리시대	v. o. u 기자석		취재스크립트	v. o. u 기자석	v. o. u. Report	취재스크립트	대학연합 통신
어보세요, 잠깐만요	열두마당				함께사는 세상			열린소리	
					Mic testing	사람사람들	서천리네트웍	현장 스케치	서천리네트웍
						집중정보			집중정보
종합 뉴스					News				
소리와 공간	기획 시리즈	'그날이 오면'	예술의 샘터		명곡의 선율	우리가락	v. o. u. 소극장	v. o. u. 소극장	명곡의 선율
안단테 칸타빌레					오늘의 만남 속에서				
오늘도 한 번 허									

경희대학교 대학의소리 방송국(V.O.U.)